

## 전환사채 회계에 관한 고찰\*

김 성 기\*\*

《目 次》

I. 연구의 목적	4. 전환사채의 상환
II.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III.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	방법의 문제점
1. 전환사채의 발행	IV. 회계처리 방법의 개선안
2. 전환사채 관련계정의 상각	V. 신주인수권부사채
3. 전환사채의 전환	VI. 결 론

### I. 연구의 목적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企業會計基準과 解釋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액면발행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어 할인(할증)발행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할인(할증)발행시에 전환권조정계정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분리하면 두 계정의 기간별 상각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해석의 내용을 분석한 후에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전환사채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환사채와 성격이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한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절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검토한다. 제Ⅲ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Ⅳ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Ⅴ절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Ⅵ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II.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계정의 상각, 전환, 상환으로 나누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환사채의 발행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전환사채를 사채만기일까지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시점에서 사채액면가액 이외에 ①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전환사채와 ②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환할증조건이 없는 전환사채로 분류한다. 상환할증조건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가치인식법을 사용하여 전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전 대가(자본조정항목)로 각각 계상한다. 상환할증조건이 없는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가치무인식법을 사용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일반사채의 발행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 2. 전환사채 관련계정의 상각

전환사채 발행시에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그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환권조정계정의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은 일반사채의 할인액(할증액)을 상각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해석 53-32에서는 전환사채가 액면발행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환사채가 액면발행되면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차금에 대한 상각은 필요없다.

### 3. 전환사채의 전환

전환사채의 전환시에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발행된 보통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전환은 전환사채와 보통주가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며 보통주나 전환사채의 시가는 무시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발행된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은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 이방법은 기업실체이론(entity theory)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부채나 자본 모두가 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취급되어 한 종류의 지분이 다른 종류의 지분으로 전환될 때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전환

권의 가치만큼 전환권대가(자본조정항목)를 계상한다. 그리고 당해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주식과 교환되는 전환사채와 관련된 전환권조정계정의 미상각액과 전환권대가와의 차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즉,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전환시점까지 상각누계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 4. 전환사채의 상환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상환은 이를 부채거래로 보느냐 아니면 자본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진다. 전환사채의 현금상환을 負債去來로 간주하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현금지급액과의 차액을 이익의 구성항목으로 해석하여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資本去來로 간주하면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에 전환권대가를 상환할증금과 상계하고 차액은 사채상환손실로 인식한다. 즉, 전환사채가 만기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사채발행시에 계상한 전환권대가를 상환할증금과 상계하고,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과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식한다.

상환할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발행시에 전환권대가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상환시에 전환권대가 및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분개는 없다.

### III.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

전환사채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

둘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환가치인식법에서는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계정으로 분해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뿐 아니라 전환권조정계정잔액도 상각하여야 한다. 즉, 전환권의 가치를 전환권조정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여 당해 전환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그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전환권의 가치가 존재한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환권의 감소하여야함도 불구하고, 전환권가치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권조정계정을 인식하지만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권조정계정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기업회계기준은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보통주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IV. 회계처리 방법의 개선안

실무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전환사채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설사 분리한다 하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시점 및 전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서 전환권대가계정에 전환권의 가치를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을 일반사채의 발행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전환권의 가치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전환권의 가치를 인식한다면,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전환권의 가치를 측정하는 문제와 측정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해석에서는 전환사채의 액면발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으로 볼 때 할인(할증) 발행시에는 전환권조정계정과 사채할인(할당) 발행차금을 분리함으로써 복잡한 상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개념적인 관점에서 전환권의 가치는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금액과 종이자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환사채의 액면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이다. 그러므로 전환권의 가치를 포함한 사채할인(할증)발행 차금만을 상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념적인 관점에서 전환권의 가치는 매기간 동안 전환사채의 현금이자지급액과 일반사채의 현금이자지급액의 차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따라서 연간 현금이자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전환권 가치의 감소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전환사채가 전환되어 보통주가 발행되면, 발행된 보통주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해 법적형태 뿐만아니라 경제적 실질의 변화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부채가 자본금으로 전환 됨으로써 고정적인 이자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실질의 변화를 강조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액면가액과 종이자액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해석에 의하면 보장수익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보장수익률은 만기상환시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환할증률을 구할때만 이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주)관악은 1997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가액이 ₩10,000인 전환사채를 ₩9,771에 발행하였다.

- 표시이자율: 연 7%
  - 시장이자율: 연 15%
  - 이자지급방법: 매년도말 지급
  - 전환가격: 액면 ₩5,000당 보통주 1주(보통주 1주당 액면 ₩1,250)
  -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원금의 116.87%를 일시상환 (보장수익률 연 12%)
  - 1999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5,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졌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1997년 1월 1일(발행일)의 회계처리

현금	9,771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29
	전환사채 10,000
전환권 조정 계정	1,598
	전환권 대가 1,598

② 1997년 12월 31일(결산일)의 회계처리

이자비용	1.226
현금	700
전환권조정계정	460
사채할인별행차금	66

③ 1998년 12월 31일(결산일)의 회계처리

이자비용	1,305
현금	700
조정전환권계정	530
사채할인발행차금	75

## ④ 1999년 1월 1일(전환사채 전환일)의 회계처리

전 환 사 채	5,000
자 본 금	1,250
주식 발행초과금	3,750
전 환 권 대 가	799
전환권조정계정	304
사채 할인발행차금	44
기타자본잉여금	451

## ⑤ 1999년 12월 31일(상환일)의 회계처리

이 자 비 용	698
현 금	350
전환권조정계정	304
사채 할인발행차금	44
전 환 사 채	5,000
전 환 권 대 가	799
사채 상환 손실	45
현 금	5,844

전환사채 할인발행의 경우를 이론적으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은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와 같으므로 전환사채가 ₩8,375에 발행되었다는 것은 일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의 표시이자율이 14%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간별 전환권가치의 감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997. 1.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일반사채	₩9,771	$₩1,400 \times 1.62571 = ₩2,276$	$₩1,400 \times 0.86957 = ₩1,217$	₩0
전환사채	8,173	$₩700 \times 1.62571 = ₩1,138$	$₩700 \times 0.86957 = ₩609$	₩0
차이	₩1,598	₩1,138	₩608	₩0
	₩460 감소	₩530 감소	₩608 감소	

전환권가치의 기간별 감소액을 계산한 후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전환사채 관련 계정의 상각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 관련계정의 상각표

연도	기초장부가액	시장이자율	할인액상각율 위한 이자비용	현금지급 이자비용	할인액 상각	전환권가치 의 감소	이자비용 인식액	장부가액 의 증가	기말 장부가액
①	②	③	④=②×③	⑤	⑥=④-⑤	⑦	⑧=④-⑦	⑨=⑥	⑩=②+③
1997	₩8,173	15%	₩1,266	₩700	₩526	₩460	₩766	₩526	₩8,699
1998	8,699	15	1,305	700	605	530	775	605	9,304
1999	9,304	15	1,396	700	696	608	788		
계			₩3,927	₩2,100	₩1,827	₩1,598	₩229		

① 1997년 1월 1일(발행일)의 회계처리

현금 9,771

사채할인발행차금 1,827

전 환 사 채 10,000

전환권대가 1,598 \*

\* ₩9,771(발행가액) - ₩8,173(전환사채의 현재가치) = ₩1,598  
사채 할인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계정을 합하여 사채 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상각이  
가평해진다.

② 1997년 12월 31일(결산일)의 회계처리

전 화 권 대 가 460

이자비용 766

금 70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26

③ 1998년 12월 31일(결산일)의 회계처리

전 화 권 대 가 530

이자비용 775

현금 70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5

④ 1999년 1월 1일(전환사채 전환일)의 회계처리

전 환 사 채	5,000
자 본 금	1,250
주식발행초과금	3,750
전 환 권 대 가	304 *
기타자본잉여금	44
사채 할인발행차금	348 **

#### ⑤ 1999년 12월 31일(상환일)의 회계처리

전 환 권 대 가	304
이 자 비 용	394
현	금 35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48
전 환 사 채	5,000
사채 상환 손실	844
현	금 5,844

$$* \text{ ₩}5,000 \times 116.87\% = \text{ ₩}5,844$$

#### V.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와 성격이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때 신주인수권과 사채자체에 대한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암묵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가정하고 있으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상법에 의하면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인 경우에도 사채자체는 보통주로 전환시키지 않고 신주인수권만 행사할 수 있다. 즉,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회사에 제시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만 사채권에 기재하거나 비망기록되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행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형태로 유통될 수 있다.

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에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이 발행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상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경제적 실질보다는 발행형식 및 거래방법이 강조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상정하여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의 행사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금	$\times \times \times$ <sup>1)</sup>
신주인수권부사채	$\times \times \times$ <sup>2)</sup>
자    본    금	$\times \times \times$
주식발행초과금	$\times \times \times$

1) 추가지급액

2) 장부가액

신주인수권대가	$\times \times \times$
기타자본잉여금	$\times \times \times$
신주인수권 조정계정	$\times \times \times$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일종의 사채중도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사채와 관련된 신주인수권 조정계정의 미상각액과 신주인수권대가와의 차액을 기타자본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환사채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다.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환사채의 회계처리방법을 개선하고자 기업회계기준과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환사채의 액면가액과 총이자액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해석에 의하면 보장수익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보장수익률은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환할증률을 구할때만 이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전환사채의 미래 현금흐름을 보장수익률이 아니라 시장이자율로 할인하고 전환권조정계정과 사채할인발행차금계정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상각의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김성기, 1997년, 현대중급회계, 다산출판사

김영덕, 1997년, 기업회계기준 해설, 세학사

유재규, 1996년, 기업회계기준 해설, 도서출판 홍

이창우, 김완희, 1996년 12월, 전환사채회계의 분석적 고찰, 경영논집 제30권 제3,4호:

52-72